

俗謠에 投影된 高麗女人의 意識

黃 在 君*

目 次

1. 序 論
2. 高麗의 社會相(朝鮮朝와 比較)
3. 麗·鮮文學에 보인 女人의 指向的 意識
4. 結 論

1. 序 論

人間의 意識은 時代나 社會, 즉 環境의 推移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環境을 超越하는 立場인 것도 있다. 崔台鎬님도 朝鮮朝 ‘戒女略言’ 研究에서 ‘戒女略言’은 ‘朱子家訓’→‘尤庵先生 戒女書’→‘戒女略言’으로 脈絡이 이어지는 것이라 結論짓는 자리에서,

“다만 倫理나 價値觀은 時代와 社會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편 時代와 社會를 超越하여 嚴存하는 基本的인 倫理 道德도 있는 것인데...”¹⁾

* 亞洲大學校, 湖西大講師, 古典文學.

1) 崔台鎬, 「戒女略言 研究」『亞細亞女性研究』제 17집, 亞細亞女性研究所 1978, p. 256.

라 했는데, 이 環境을 超越하는 意識(倫理)은 누구나가 共有하는 것이고 環境의 推移에 따라 生成派生되는 意識은 時代나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는 人間心理의 優劣을 가릴 수 있는 要素라 생각된다.

이 ‘環境을 超越하는 意識’을 우리 麗·鮮의 女流文學에서 찾아 보면, 女性主人公의 現實指向性이나, 主題로서의 ‘恨’, 女性 作中人物의 人間殘虐性 등을 舉例할 수 있겠다. 李庸勳님은 ‘動勳’의 제 1스텐자(Stanza) “德으란 곰비에 반죽고/福으란 뭉비에 반죽고/德이여 福이라 호놀/나으라 오소이다.”나, ‘鄭石歌’의 제 1스텐자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先王聖代에 노니 수와지이다.”를 예들어,

“個人的 幸福과 그 소망의 성취를 彼岸의 世界가 아닌 此岸의 세계, 즉 현실 세계에서 구하는 現世중심적 意識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²⁾

라 했고, 金用淑님도,

“한편 古小說 作中人物들의 신분이 앞서 身分條에서 보아 왔듯이 90% 이상이라는 貴族名門 階級에의 一邊倒는 이조人들의 유교적 現世주의로서 立身揚名에의 향수 乃至 渴求의 白日夢的 表出이라고도 볼 수 있다.”³⁾

라 하여, 麗·鮮文學에서, 女流作家나 女性主人公의 用心에 現實指向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金用淑님은,

“결국 喜怒哀樂의 激動을 다 漂白해 버리고 난 뒤의 素素한 빛—이것이 浮動하는 氣分이 아닌 烟氣와 같이 땅에 착 깔려서 이미 가슴 속 어는 한 부분에 자리잡은 것, 이것이 恨이다.”⁴⁾

라고 恨을 定義하고, 韓國 女流文學의 特質을 ‘恨’으로 보았고, 筆者도 拙稿 ‘女流 俗謠의 主題와 릴러시즘’에서, 女流 俗謠의 共通된 主

2) 李庸勳, 「麗謠의 意識指向에 對한 一考察」 『韓國海洋大學 논문집』 제 14집, 韓國海洋大學, 1979, pp. 160~161.

3) 金用淑, 「古小說에 나타난 愛情觀」 『亞細亞女性研究』 제 13집, 亞細亞女性研究所, 1974, p. 73.

4) 金用淑, 「韓國女流文學의 特質」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李朝女性研究』 所收, 1977, pp. 70~71.

題를 ‘恨’으로 묶을 수 있다⁵⁾고 했는데, 이 두 引文은 麗·鮮朝 女流文學의 主題에 크게 ‘恨’이란 通性을 가졌음을 立證한다 하겠다.

끝으로, 麗·鮮文學에서 作中人物(女性)의 殘虐性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李能雨님도 ‘朝鮮小說에서 女性的 發見’이란 題下의 글에,

“조선조의 소설에 나타난 女性型을 消極的인 面과 開拓的 積極的인 面의 둘로 나누고 특히 女性 先唱의 여러 現象들을 規明하였다. 그리하여 권선징 악을 目的으로 했던 이러한 小說들에서 女性主人公들의 人間殘虐의 行爲들이 의외로 많이 비친다.”⁶⁾

라 했다. 이 殘虐相은 女流 여요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履霜曲’의 ‘중중 霹靂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덜 내모미’라든지, 西京別曲의 ‘네 가지 림난더 몰라서/넢비예 연즌다 사공아’ 등에는 心理的 虐待까지도 보인다. 소위 前者에는 自虐症이요, 後者에는 加虐症이다. 이런 心理的 殘虐性이 오히려 朝鮮朝 小說에서 볼수 있는 行動으로서의 殘虐性보다 苛酷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人間이 共有하는 意識——環境을 超越하는 意識——을 여·선의 女流文學을 通하여 알아 보았다.

다음은 人間 心理의 優劣을 가릴 수 있는 意識——環境에 따라 變하는 意識을 역시 여·선朝를 通하여 살핍으로써 고려 女人의 指向 意識을 알아 보자.

2. 高麗의 社會相(朝鮮朝와 比較)

高麗社會와 朝鮮의 그것은 根低부터 相異한 兩面을 보여 준다.

먼저 고려 사회는 太祖以來 줄곧 崇佛政策을 指向한 데 反하여, 朝鮮은 抑佛崇儒로 치달았다. 李存熙님은,

“고려의 불교는 현실 생활과 關係를 깊게 가지며 발전되어 갔다. 고려 귀족들은 불교가 국가와 개인의 現世에 있어서의 행복을 左右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즉 現世 이익의 종교로서 불교가 君臨한 것이다.”⁷⁾

5) 筆者拙稿, 「女流俗謠의 主題와 理論적 根據」 『明知語文學』 제12호, p. 140.

6) 李能雨, 『李朝女性研究』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7, pp. 220~221.

7) 李存熙, 『韓國史概說』 明知大學 出版部, 1977, p. 95.

라 하여 고려는 불교를 實利的 側面으로 援護했지만, 이는 宗教自體의 어쩔 수 없는 特性 때문에 以後 많은 고려인들의 意識이 未來指向的이 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에 比하면 조선은 現實에서의 實踐을 强要하는 儒敎의 閉鎖性에 羈縻되어 現實執着의 社會였음은 익히 아는 바다.

둘째, 家族制度의 兩面을 볼 수 있다. 고려가 父母系(雙系) 中心이었다 하면 조선은 가차없는 父系中心制라 할 수 있다. 家族制度에 關하여 筆者의 見解를 結論부터 말한다면, 通時的으로 볼 때, 母系中心制→父母雙系制→父系中心制로 變遷·進行되었다고 본다. 대충, 上古時代는 母系, 그 이후 麗朝는 父母系, 朝鮮朝에는 父系中心으로, 이는 心理的 側面으로 보더라도 上古 原始社會에선 集團이나 部族中心의 生活이었을 것임으로 男丁네는 集團의 共同利益에 專心하고 家庭의 出産이나 子女의 養育 및 家庭大小事는 女人들의 手足을 필요로 했을 것이요, 三國이나 고려에 와서는 集團中心에서 짐차 벗어나 男丁네도 家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며, 朝鮮朝에 와서는 社會分業의 助長과 個人主義의 登壇으로 남자는 家庭에 個人의 牙城을 쌓고 여인들을 그 牙城에 가두고 그 牙城에서 皇帝노릇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여러 分의 도움말을 보기로 하자.

“桓雄天王이 熊女의 處에 臨하여 檀君을 孕케 하고 다시 交涉이 없으면 天帝子 解慕漱가 清河伯女 柳花의 宮에 이르러 朱蒙을 孕케 하고는 그만 蹤跡을 감추는 것처럼 父性은 孕時 以外의 任務가 없고 産育은 母性 本位로 行하였으니 이는 分明 母系制의 反映”⁸⁾

“그러하여 人的 관계가 극도로 단순한 형태는 바로 원시시대의 社會의 특징인데 이런 狀況下에서는 가족적 관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되는 것이며 女系制라 해도 충분히 그 妥當性은 말할 만한 것이요, 이로 因해 女性의 豁達하고 積極的인 기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⁹⁾

위 두 번째 引文도 첫 번째 引文을 首肯하여, 결국 우리 上古時代

8) 崔南善, 『朝鮮의 常識(風俗篇)』 서울, 東明社, 1948, p. 55.

9) 金在萬, 「傳統的 韓國女人像의 研究」 『女性問題研究』 제5·6집, 효성여대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76, p. 365.

엔 母系制 社會였음을 말하고 있다.

“[高麗史 節要] 靖宗 12年, 文宗 22年의 기록에 依하면 嫡子, 嫡弟, 弟, 庶子孫, 女孫, 姪, 收養子의 順으로 家계를 계승케 되어 있으며...”¹⁰⁾

“男子孫이 없는 者의 功蔭田을 女婿, 親姪, 養子의 順으로 世襲시켰고 庶子가 있으면서도 女婿에게 家系를 계승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點, 죄를 범했을 경우 女婿가 實子와 같이 連坐되었다는 사실 등은 모두 고려조의 가정인 父系制이면서도 雙系的인 側面을 상당히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¹¹⁾

上記 두 引文을 보면, 朝鮮朝의 철저한 父系中心制에서 보다는 고려 시대는 女子의 權利가 多量 認定되어, 女子의 行動은 꽤 自由로왔음을 볼 수 있다.

“고려때까지도 남녀의 관계가 자유로웠지만 이조에 들어 와서는 朱子家禮 및 유교의 眞佛과 더불어 열녀사상이 은연중 眞 여성을 구속하였던 것이다 她們들은 改嫁가 용인되지 않았다.”¹²⁾

“三從之禮는 바깥에서 주어지고 남에게서 떠맡겨 졌으나 그로인해 생겨난 은갖 고통과 비에는 오히려 自我의 내적 운명의 眞연인 양 眞감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¹³⁾

金用淑, 金烈圭 두 분도 조선의 儒學的 父系制가 女人에게 規定한 三從之禮나 守節思想 등으로 因하여 朝鮮의 女人은 抑壓되고 消極的인 性格을 갖게 되었다 했다.

세 세, 朝鮮朝가 開國以來 平溫을 持續하다가, 壬·丙子 兩亂을 克服하고 西歐 近代精神을 따라 무난히 現代로 移讓된 데 比하여, 고려 사회는 中期以後 對內·外로 혼란과 疲弊의 渦中에서 眞력이다 朝鮮에 國權을 넘겨 주게 된 것이다. 고려조의 對內·外的 混亂과 疲弊는 戚臣(外戚), 權臣, 奸臣, 武臣들의 對內的 亂으로 시작되어, 이에 自

10)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韓國文化史大系』所收, p. 461.

11) 崔在錫, op. cit., p. 466.

12) 金用淑, 『人物韓國史』(Ⅲ), 博友社, 1965, p. 544.

13) 金烈圭, 『人物韓國史』(Ⅲ), 博友社, 1965, p. 486.

招된 外患(몽고의 數次 侵入)으로 終結되었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려는 中期以後, 殺戮과 양갈음, 또 大量 殺戮, 支配者에 對한 恨맺힌 屈從과 反抗의 阿鼻叫喚으로 點綴되었다 할 만하다. 고려 中期以後로부터 몽고의 外侵(外患)을 받기 直前까지의 對內的 混亂(內憂)의 연속을 李存熙님은 다음처럼 오버·랩(over-lap)시키고 있다.

“李資謙은 仁宗을 살해하려고까지 하더니 도리어 일당인 拓俊京에게 제기 당하고 말았다(仁宗 5년). 이로써 이자겸의 난은 완전히 끝났지만 그것이 고려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妙淸 등에 의하여 전개되는 서경 천도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金富弼의 지휘를 받은 官軍에게 1년만에 서경이 함락되고 妙淸의 亂은 진압되고 말았다. 그 난의 영향은 후일 武臣亂을 유발케 하였다.”¹⁴⁾

“고려 前期의 문벌귀족 중심 사회에서 무반은 권력의 상층부에서 除外된 채, 문신들로부터 人格의인 모욕까지 당하면서 불명 속에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누적되어 온 무신들의 불만은 무신 귀족 사회의 모순이 절정기에 달하였고, 毅宗代에 이르러 구테타로 폭발하고 말았다(1170년). 鄭仲夫, 李義方, 李高等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난은 여타의 병졸들의 동조를 얻어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무신난 직후에 정권을 잡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은 서로 싸우다가 정중부가 최후의 勝者가 되었는데 그도 慶大昇에게 제기되었고 경대승이 병사한 후에는 李義方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듯 걸잡을 수 없었던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李義瑀도 결국 崔忠獻 형제에게 피살되었다. 이제 최씨 정권이 서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무신정권이 교정되어 독자적인 지배체제가 확립된다.”¹⁵⁾

이런 連發的 對內的 混亂이 濾過되고 겨우 崔氏의 武政이 接脈되려 할 즈음에 몽고의 大兵이 고려에 1次 入城을 감행했다(고종18년 1213년). 몽고軍의 侵入은 前後 30년에 걸쳐 6회에 巨했다. 당시 몽고軍 侵入으로 인한 고려 피해의 一端을 李基白님은,

“그(6次 侵入 : 筆者 註) 중 고종 41년(1254)에 車羅大가 침입했을 때는 그 피해가 가장 심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가 20여만명이었고 죽음을 당한 자는

14) 李存熙, op. cit., pp.85~86.

15) 李存熙, op. cit., pp.101~102.

낼 수 없었다.”¹⁶⁾

라 했다.

고려는 抗蒙의 一環으로, 강화도로 遷都·築城하여 버티었으나 드디어 高宗은 元宗에게 讓位하고, 또 元宗은 即位 初 몽고에 가서 講和의 뜻을 表하였다. 즉, 元宗은 國內에서의 自身の 地盤을 強化하기 위하여 世子(후에 忠烈王)와 元의 제국대장공주와의 婚姻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元 世祖도 고려를 懷柔하기 위해 이를 許諾했던 것이다. 그 뒤 元宗은 忠烈王에게 양위하게 되고, 忠烈王은 제국대장공주의 지맛자락에 매달리어 드디어 그의 정치적 安靜을 維持해 나갔던 것이다. 以後 고려가 직접적이요, 또 가장 실감나게 元의 政治及 文物에 隸屬되는 前轍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네제, 朝鮮 500年の 律(法律)이 明나라 그것의 굴레에 羈絆된데 比하여 고려 元宗 以後의 高麗律은 元律을 그대로 施行하게 된다. 延正悅님도 ‘고려律에 관한 研究’에서,

“元은 고려 朝廷을 屈服시킨 後 고려 王位 계승에서부터 王室의 婚姻, 官制·敎育에 이르기까지 干涉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一般 庶民의 服制와 頭髮까지 蒙古風을 다르게 하니 고려 固有의 풍속에도 그 영향을 끼쳤다. 律令 역시 從來 고려律을 폐하고 그들의 律令인 ‘至正條格’을 적용. 施行하게 되니, 고려의 立法 및 法運營의 主體性을 상실한 시기다.”¹⁷⁾

라 했다.

나섯째, 律令제도와 함께 麗·鮮의 女人들을 얻어내는 特殊한 規範으로 朝鮮의 ‘三從之禮’와 고려의 元에 對한 ‘貢女制’를 들 수 있겠다. 朝鮮의 ‘三從之禮’는 조선 女子들을 家庭의 閨房이나 後園으로 몰아 들어 결과적으로 많은 內房歌辭나 戒女略言 등을 낳게 했고, 고려의 貢女制는 고려 女人들에게 永遠히 救援받지 못할 離別의 恨을 안겨 주었다. 이 고려의 貢女制란, 朝廷에 ‘寡婦處女 推考別監’과 ‘結婚都監’을 두고, 여염집 妻子나 妻孀, 寡婦를 마구 選拔하여 元으

16)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77, p. 181.

17) 延正悅, 「高麗律에 관한 研究」 『漢城大學 논문집』 2집, 1978, p. 6.

로 보내는 制度인데, 이는 元宗때부터 생겼지만, 忠烈王때 極에 達했었다.

“그들(元: 筆者 註)은 元宗 15年 3月부터 恭愍王 5년에 이르기까지 82년간 한국 처녀와 과부를 끌고 간 것이다.”¹⁸⁾

라 하여 呂增東님은 貢女制度의 始末의 結果를 要約하고 있다. 또 貢女制로 인한 當時의 慘絶한 形勢를 李穀¹⁹⁾은,

“一遇使臣 國中駭然 雖鷄犬 不得寧焉.”²⁰⁾

이라 했고, 또 金智勇님은,

“민간의 처녀나 과부를 강제로 색출 선발해서 칼과 창으로 등을 밀어 원나라로 보냈다. 동물이나 가축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색출해서 보내노라니 국내의 소란과 원성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찻었고, 온 천하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화했다.”²¹⁾

라 했는데, 이는 主觀의 과정의 感은 있지만, 貢녀제로 인한 慘狀을 쉽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社會的 與件으로 볼 때, 고려 女人들은 最少限 限과 離別없이 살려 했을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여기에 고려 女流俗謠의 製作 年代를 忠烈王 前後로 보려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고려 俗謠 素材의 舉皆가 離別이며, 그 主題는 情恨, 그 中에서도 別恨이기 때문이다.

以上 學論을 要約하면 고려는 朝鮮社會와 比해 霄壤之差의 社會相을 보이는 바, 고려는 일찍부터 佛敎를 國敎로 삼아 그 基礎의 低力으로 하였으며 家庭의 으로는 父母雙系制라 할 수 있어 朝鮮朝의 眼界로 보면 女權이 伸張되어 팔복할 만한 自由生活을 할 수 있었다. 그런

18) 呂增東, 『韓國文學史』 螢雪出版社, 1973, p. 95.

19) 麗末의 文章家, 李穡의 父親.

20) 『高麗史』 列傳 22, ‘元屢求童女于本國 御史臺請罷疏文’에 있는 글로, 원에서 온 貢녀사신을 만나면 개나 닭까지 편하지 못했다는 뜻.

21) 金智勇, 『韓國女性文學史研究』(2), 수도여자사범대학 『논문집』 제 5집, 1971, p. 83.

데, 고려 中期以後는 고려朝 內部的 矛盾으로 因하여 傾國之亂을 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社會의 混亂과 疲弊는 極에 達하여 蒙古(元)의 빠른 侵入을 그것도 屢次에 걸쳐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서 當하는 恥辱과 煩悶은 그 顛末의 形容을 不許할 程度였다. 國律을 元의 律인 至正條格으로 고치고, 定期 또는 不定期的으로 고려의 美女들을 元에 獻上해야 했다. 上으로 帝王은 元의 제국대장공주의 치맛자락을 잡고 질질 끌려 나갔으며, 大臣에서 末職에 이르기까지도 苛斂誅求의 勞를 그치지 않았다. 이에 孤子한 百姓들의 生活은 難澁과 疲弊의 極을 가능했고 如履薄冰 속에서 慘憺한 生活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狀況에 놓인 고려 百姓(특히 女子)들은 과연 어떤 心理(意識)를 갖게 되었을까?

前章에서 말한 環境을 超越하는 基本意識인 現實指向性이나, 긴박한 現實狀況에 對한 恨(情恨) 以外에도 延綿한 未來指向性을 最後의 堡壘로 지니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는 國初 以來로 現世에서의 實利的 側面으로 護佛했지만 宗教自體의 어쩔 수 없는 屬性의 影響으로 百姓은 來世觀을 갖게 되었을 것이요, 더구나 中期以後에 오면 겹쳐지는 內憂外患에다 元의 法律인 至正條格을 施行하는데 따른 貢女制로 加해진 慘憺한 塗炭境에서 본래 豁達하고 積極의이며 自由生活을 謳歌했던 麗代의 女人들은 當장 人生無常을 느껴 ‘죽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석사리 조분 꿈도신 길강’이나, ‘西京의 大同江’, ‘어름 우희 댁넙자리’ ‘멀위 다래의 靑山’ ‘나마 조개의 바다’ 등에서 그녀들은 海潮에 풍덩 빠지거나 가파른 절벽에서 落死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極限狀況에서 고려 女人들은 人生의 ‘뒤편길’을 되섬으며 이를 消化·濾過해서 觀照된 心情으로 象嵌靑瓷을 아로새기기도 하고, 八萬大藏經을 雕削하고 俗謠을 念誦하며 더 좋은 未來의 理想世界를 期約했을 것이다. 舉皆 고려 藝術의 佳作들(象嵌靑瓷, 八萬大藏經, 俗謠)이 이런 狀況에서 胚胎되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趙潤濟님도,

“내제로 고려의 詩歌(俗謠 : 筆者註)는 애처롭다 하는데, 이 애처롭이란

곧 불교에서 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人生의 빈치를 논하고
정적인 명상에 의하여 人生(現實: 筆者註)을 否定하기를 念願하였다. 따
서 人生에 無常을 느끼고 厭世的이 되기 쉬우나...”²²⁾

라 하여, 고려 속요는 佛敎에서 유래된 애처로움이 흐르고 있으나, 이
는 混亂된 現世에 對한 否定일 뿐, 영원한 理想郷에 對한 否定은 아
니라 했다. 이런 고려인(女人)들의 理想主義的 未來指向性은 고려 女
流 俗謠 속에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

“천년을 아아 천년을/외로이 살아 였다 하여도/믿음이야 어찌 차마 끊
어지리/구슬이 아아 구슬이/바위에 떨어진다 하여도/끈이야 어찌 차마 끊
어지리!

생활을 초월하고 육신을 벗어난 순수한 사랑만을 기구하여 합장했을 어느
가여운 女心에는 塵世에서의 해탈을 빌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향훈이 서
려있는 것이다.”²³⁾

라 하여, 金烈圭님도, 고려 女人의 未來에 到來할 理想郷에 對한 未
來指向性을 讚美하고 있다.

3. 麗·鮮朝 文學에 보인 女人의 指向的 意識

叙上에서, 金用淑님은 韓國女流文學의 特性은 ‘恨’에서 發見된다
하였고, 筆者도 女流 俗謠의 共通된 主題를 恨으로 묶은 바 있다. 結
局, 麗·鮮朝 文學의 特性은 亦是 ‘恨’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朝鮮朝 女人들은 恨스런 生活, 恨스런 現實이지만 결국, 女
必從夫나 ‘夫乃天’의 倫理에 꺾이고 마는 消極的 意識을 보여주고 있
다. 勿論 朝鮮後期の 實事求是學이 붓물 더지듯이 流入되었을 때는
恨스런 生活을 곧 清算하려는 듯이 허수아비 같이 거추장스러운 傳統
的 權威에, 諷刺, 諧謔, 猥褻로 挑戰하는 새로운 局面을 볼 수 없는

22) 趙潤濟, 『國文學概說』 서울, 東國文化社, p. 449.

23) 金烈圭, 「古典 속의 사랑의 風俗圖」 『人物韓國史』(Ⅲ), 博友社, 1965,
p. 483.

마는 아니나, 一般的으로 볼 때 朝鮮朝女人의 意識은 消極的 現實追求로 끝나고 만다. 이는 유교사회가 女子에게 내리는 苛酷하고도 거북한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음 여러분의 見解를 들어보자.

“三從之禮는 바깥에서 주어지고 남에게서 떠맡겨진 것이나 그로해서 생겨난 온갖 고통과 비에는 오히려 自我의 內的 運命의 필연인 양 감당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²⁴⁾

“남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환심을 사는 軍談小說이나 ‘이춘풍전’이나 그 마지막 결말은 결국 女必從夫와 男尊女卑, 夫乃天의 봉건 윤리에 영합하는 것이 고대소설의 특징이다.”²⁵⁾

“‘有德하신 우리 父母 사립문을 다시 열고 손길을 서로 잡아 떠나는 나를 보고 유정히 하는 말삼 三從行實 니아나나 七去之惡 니아나나 媿父母前 효성하고 지성동정 공경하고 親戚間에 우애하고 노비조차 厚愛하라……(任東權撰,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p.150).’ 여기서 볼 수 있는 三從行實이나 七去之惡이란 조선 사회를 남성 위주로 구성한 근본적 힘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女子는 철저히 男子의 從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²⁶⁾

첫 번째 引文은 個人的 論評으로, 두 번째 것은 조선시대 소설을 통해서, 마지막 것은 조선조 民謠를 예로 하여, 조선조 女人들은 강요된 힘에 依하여 消極的이며 現實指向的인 意識을 가지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女人들은 恨스런 生活, 恨스런 社會의 局面을 맞아, 본래 豁達하고 積極的인 意識과 沸騰하다가, 現實에서는 恨을 머금은 채, 다음에 맞을 새로운 局面(理想鄉)이나 來世로 意識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즉, 未來指向的 高次元으로 나아간다고나 할까. 그녀들의 沸騰한 감정은 俗謠에 諷刺나 諧謔 逆說 등의 告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佛敎의 影響도 컸겠지만 본래 豁達하고 積極的인 고려 女人의

24) 金烈圭, op. cit., p. 485.

25) 金用淑, op. cit., p. 72.

26) 金在萬, op. cit., p. 378.

心像에서 自生된 意識이었을 것이다.

‘西京別曲’

- Ⓐ {
여히므른 길삼빅 버리시요 / 피시란덕 우리곰 쫓니노이다.
- Ⓑ { 구스리 바회에 더신돌 / 긴잇싼 그츠리잇가
즈른 히를 외오곰 너신돌 / 험잇싼 그츠리잇가
- Ⓒ { 大同江 너븐더 물라셔 / 빅 내어 노홀다 사공아
네 가시 림난더 물라셔 / 널빅에 연춘다 사공아
大同江 건너편 고줄여 /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樂章歌詞>

(餘音省略, ⒶⒷⒸ 挿入 : 筆者註)

‘鄕石歌’

- Ⓐ { 므외로 한쇼를 디여다가 / 므외로 한쇼를 디여다가 /
鐵樹山에 노호이다 /
그외 鐵草를 머거아 / 그외 鐵草를 머거아 /
有德한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 Ⓑ { 구스리 바회에 더신돌 / 구스리 바회에 더신돌 /
긴잇돈 그츠리잇가
즈른히를 외오곰 너신돌 / 즈른히를 외오곰 너신돌 /
험잇돈 그츠리잇가

<樂章歌詞>

(ⒶⒷ 挿入 : 筆者註)

筆者는 拙稿 ‘고려 俗謠의 主題와 ‘릴리시즘’에서, 女流 俗謠로 10篇(勳勳, 井邑詞, 滿殿春別詞, 가시리, 履霜曲, 鄕石歌, 西京別曲, 雙花店, 思母曲, 相杵歌)을 추려 내었는데 위 두 篇은 그 속에 드는 것들이다. 또, 上記 10篇의 共通된 主題를 恨(情恨)이라 했는데, 위 두 篇도 같은 主題로 그 中에 ‘別恨’을 表出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西京別曲’의 例示 Ⓐ에서는, 邑과 의 當장의 離別이 두려워 除百事하고 입을 따라 나서, 같이 現實에서 살려함을 보이코 있고,

‘鄭石歌’의 例示 ㉔에서도 有德하신 임과의 別離는 餘他 不可能한 事實은 可能하게 될지 몰라도 絶대로 不可能하다고 高執하여 女人의 積極的인 現實指向 意識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現實은 冷酷한 것—임과 같이 살려는 最少限의 고려 女人의 懇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급박한 것이었다. 男丁네는 重役이나 私役으로, 女人은 貢女制에 公貢 묶여 뿔뿔이 헤어져야만 했다. 고려 女人은 이런 현실을 ‘恨’으로 처리하고, 그러나 不屈의 意志로 다시 만나 살 後日을 期約하는 것이다. 後日에 올 理想郷이나, 아니면 混亂없는 西方淨土에서 再結合을 바라고 있다. ‘西京別曲’, ‘鄭石歌’의 例示 ㉕는 바로 이런 고려 女人의 心情의 表白이다.

‘끈에 꿰 구슬(임과 하나된 원숙한 사랑)이 바위 ‘냉혹한 현실’에 떨어져도 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음처럼, 임과 맺은 偕老의 사랑은 이승·저승을 不問하고 변할 수 없습니다.

라 하여, 암과 사랑의 맹서는 時空을 超越하여 지킬 것으로, 悲壯感 마저 주고 있다. 고려 女人의 後日 期約은 尹海煥의 日帝에 對한 抗爭詩 ‘懺悔錄’의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나, 陸史의 ‘다시 千古의 뒤’에 비유될 수 있다 할까? 不然이면 徐未堂의 ‘春香의 말’에서의 ‘거기(도련님의 곁)’라고나 할까? 이러한 未來指向의 意識의 아름다움을 金烈圭님은,

“여요에서는 애정이 육신과 생활을 떠나 순수한 애정으로서 추상화되어 있다고나 할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여대 선인들은 애정을 생활의 脈絡에서 따모 유리시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생활을 초월하고 육신을 벗어난 순수한 사랑만을 기구하여 습攀했을 어느 가어운 女心에는 塵世에서의 解脫을 빌어 靑色을보살을 躡승하는 香燕이 서려 있는 것이다.”²⁷⁾

라 극찬하고 있다.

다시, ‘西京別曲’의 例示 ㉖를 보자.

‘네 가지 림난디 몰라셔/넌빅에 연즌다 샤공아/大同江 건넌편 고

27) 金烈圭, op. cit., p. 483.

줄여/빅 타들던 것고리이다.’에는 當時 荒淫에 젖은 時代相을 날카롭게 批判·告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임이 大同江을 渡江하면 다른 女人을 맞을 것이라는 걱정이 아니라, 當時 荒淫의 蔓延을 告發한 戒告狀이다. 要約컨대, 上記 두 俗謠에서 볼 수 있는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的 意識은 참으로 영롱한 비취의 진수, 그것이라고나 할 만하다.

‘嚴霜曲’

비 오다가 개야 아 눈 하 디신 나래/서린 석석사리 조분 곱도신 길례 잠
사간 내니플 너져 깃든 열명길헤 자라 오리잇가

- ① { 종중 露籠 生陷墮無間 고대서 쇠여될 내모미
 종 露籠 아 生陷墮無間 고대서 쇠여될 내모미
 내닐 두옵고 넌외툼 거로리
- ② { 이리쳐 더러져 이리쳐 더러져 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홀터 너졌 期約이이다

〈樂章歌詞〉

(餘音省略, ㉠㉡ 挿入: 筆者 註)

‘滿殿春別詞’

어름 우희 땃넙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명
情든 오늬밤 더의 새오시라 더의 새오시라

- ① { 耿耿 孤枕上에 어느 즘이 오리오
 西窓을 어러하니 桃花 發하두다
 桃花는 시름 업서 笑春風하느다 笑春風하느다

덕시라도 님을 홀터 너넛景 너기타니
 덕시라도 님을 홀터 너넛景 너기타니
 벅기머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① { 을하 을하 아련 비을하/여홀란 이의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열면 여홀도 도하니 여홀도 도하니
 南山에 자리 보와 玉山을 벅여 누어/
 錦繡山 니를 안헤 麝香각사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닷초옴사이다 맛초옴사이다.

㉑[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필솔 모락읍새

<樂章歌詞>

(㉑) 挿入: 筆者 註)

위 두 노래의 作家와 歌詞形式의 改作·合成過程이나, 主題는 筆者의 拙稿 ‘고려 女流俗謠의 主題와 謄리시즘’에서 밝힌 바 있다. 作家는 고려 女人이요, 主題는 恨(別恨)이며, 그 體裁는 ‘履霜曲’, ‘滿殿春別詞’의 原歌에 ㉑의 添加謠가 挿入 改作된 것이다.

‘履霜曲’에서의 例示, ㉑ 添加謠는 當時의 時潮를 告發하고 있다.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몸’의 瞬間的 刹那的 頹廢는 아마 고려 京·鄉에 蔓延된 風潮였을 것이다.

‘滿殿春別詞’의 例示, ㉑ 添加謠도 時流를 逆說的 諷刺로 告發하고 있다.

‘소곳 일면 여홀도 도하니 여홀도 도하니’는 候鳥처럼 對象을 바꾸어 荒淫에 취하는 모습을 도마에 올렸고,

‘麝香각시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맞조읍사이다’는 플로베르투의 리얼한 淫褻之情을 그렸다.

위 두 노래에서 添加謠를 除하고 統譯하면, 첫째 노래는,

‘입과 나는 千年을 같이 살자 期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입이 버리고 간 나의 거처는 진눈개비가 쌓인 索漠한 곳, 즉 열명길(十念怒明王)입니다. 이 거처에서 내가 입을 못잊어 戀戀한다 해서 당장 입이 돌아올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이여, 입이여, 우리 사이가 사소한 打算으로 요모조모 따진 저지입니까? 그런 판제는 아닙니다. 나는 입과의 千年 期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입을 믿고...’

의 뜻인데, ㉑主題聯에서는 ‘지금 이별해 있는 입과의 千年 期約을 지키겠습니다’라 하여, 지금의 離別은 恨스럽지만 그 언젠가 다가올 新天地에서 맞을 再會를 向하는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 意識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더구나 이 노래의 添加謠를 李相寶님이,

“‘종종 벽력 아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 모미’ 등이 모두 불교에서

오는 정신적인 生活의 所産.”²⁸⁾

이러한 사실을 想起한다면, 이승에서는 잠깐 別居한다 할지라도 永生이 있는 西方淨土에서 다시 만나 즈믄 해를 같이 살자는 굳은 信念을 보였다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고려 當時 社會의 亂脈相과 거기에 貢女制가 고려 女人에게 안겨준 心理的 衝激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알만도 하다.

두 번째 노래는,

“찬 겨울 얼음 위에 대자리를 깔고 얼어 죽을망정, 임과 함께하는 이밥이 새지 말았으면, 새지 말았으면…. 죽어 영혼만이라도 같이 살자면 당신의 말처럼 당신과 같이 사는 생활만을 꿈꾸어 왔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떠나다니 누구의 참소(모함)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떠나는 일이며, 지금은 떠나지만 영이별(遠代平生애 여필)은 없어야 합니다.”

의 뜻인데, 例示, ㉔主題聯에서는 亦是 ‘이절 수 없어 지금은 떠나지만 영 이별은 없어야 한다.’고 하여 後約은 잊지 않고 있다.

上記 ‘이상곡’, ‘만전춘별사’의 主題聯 ㉔의 構成着想과 餘韻은 同類의 것이다. ‘이상곡’ ㉔의 ‘期約’과 ‘만전춘별사’의 ㉔의 ‘遠代平生’은 같은 이미지레이션으로 모두 ‘미래, 新天地, 理想郷’의 暗喩가 아닐까?

사실, 위 두 노래를 道間에 淫褻之詞니, 荒淫之情 및 妖艷한 肉情을 대담하게 그린 것으로 不祥하다 하지만, 이들 要素는 時代相을 諷刺·告發한 것일 뿐으로 이들만을 除한다면 原謠의 主題는 순연한 別恨으로 麗代 女人의 強烈한 未來指向 意識을 表白했다 할 만하다.

‘가시리(歸呼曲)’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논/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논/위증즐가 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향고/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논/위증즐가 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 마르논/선향면 아니 올제라
설은넙 보배 옳노니 나논/가시논 듯 도셔오쇼셔 나논/위 증즐가 大平盛代
〈樂章歌詞〉

28) 李相寶, 「韓國佛敎歌辭의 歷史的 考察」 『명지대학 논문집』 제 4집, 1971, p. 130.

이 ‘가시리’는 「樂章歌詞」에 所載되었는데, 作家 年代 未詳의 高麗 俗謠라 하나, 筆者는 이미 高麗 忠烈王 前後의 어느 女人의 作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高麗史」俗樂條²⁹⁾엔 ‘가시리’가 歌詞 不傳인 ‘禮成江曲’의 前篇이며 作者도 그 女人의 男便이라 傳하고있다. 그래서, 李秉岐님도,

“‘가시리’는 高麗 俗樂 ‘禮成江曲’의 前篇이며, 그 男便이 悔恨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³⁰⁾

했다. 그러나 이러한 類推는 典據의 不足과, 朝鮮 학자들의 「고려사」 俗樂條 記錄의 誤謬에서 빚은 推理失策에서 緣由된 것이다.

‘가시리’가 어찌 男丁의 作品이겠는가? 歌意를 보면 離別을 설 워하는 애끓는 女人의 情이 심세하게, 또 상냥하게 才致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떠나려 하십니까, 정말 떠나시렵니까? (제 1 Stanza) 저를 두고 떠나려 하심이 진정입니까? (제 2 Stanza) 더 以上은 잠지(挽留하지) 않겠습니다만...(제 3 Stanza) 보내기 안타까운 당신을 勢不利하여 보내드리니, 돌아오다 하신 後約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 4 Stanza)’

이 ‘가시리’는 餘他 俗謠보다 綺麗, 才致에 흘러 眞實味는 덜 한 바 있지만 豁達했던 高麗 女人의 諦觀섞인 別恨을 볼 수 있다. 主題聯은 마지막 스텝자로 諦念섞인 別恨을 보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後約은 잊 지 않고 있다. 金宇鍾님도,

“諦觀이나 諦念이란 말은 원래 면밀하게 자기의 주변을 살핀다는 뜻이다. 그것이 지금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한다는 제 2의 의미를 넣고 그것이 일반 화법에 이르렀다.”³¹⁾

29) 前略……昔有唐商賀頭綱 善棋 嘗至禮成江 見一美婦人 欲以棋賭之 與其夫棋 佯不勝輸物位 其夫利之 以妻注頭綱一舉賭之 載舟而去 其夫悔恨作是歌 世傳. 婦人去時 粧束甚固 頭綱欲亂之不得 舟至海中 旋回不卹之 巨節婦所感不濕其婦 舟必敗 舟人懼 勸頭綱濕之 婦人亦作歌 後篇也.

30) 李秉岐, 國語國文學會編 『고려가요연구』, 서울, 정음사, 1979, p. 25.

31) 金宇鍾, 「隱道 속의 平民文學」 『人物韓國史』 博友社, 1965, p. 492.

고 하여, 현대인은 謫念의 意味를 誤用하고 있다 했는데, ‘가시리’에 서의 女人은 이별하지 않을 수 없는 不得已한 局面을 맞아 재빠르게 자기 주변의 이별해야 할 여건을 살펴, 당장은 떨어지지만 결국, 먼 훗날의 再會(後約)를 도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2,3步 前進을 위한 1步의 退進인 것이다. 問題는 이 女人의 終局的 意識이다. 서러움에 이별하느니만큼 조속히 新天地를 만나 뜨겁게 再會하자는 女人의 意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의 意識은 이 ‘가시리’ 全聯에 亘해 있는 ‘太平盛代’란 말에 더 강렬하게 反響되고 있다.

‘먼 훗날 太平時代に 만나자. 새로 펼쳐질 新天地인 太平盛대에 再會합시다.’ 現世가 얼마나 不安·淒絶했으면 이 ‘가시리’ 全篇에서 ‘太平盛代’를 거의 중얼거리듯이 외었을까? 李庸勳님도 이 ‘가시리’에서의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의 意識을 다음처럼 代辯하고 있다.

“주인공은 이별을 통하여 다시 만날 것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님과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현세가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훗날 太平盛代에서나 이루어질 일인 것이다. 애절한 이별의 상태(고통스런 현실 상황)를 끝내고 장차 님과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謳歌할 수 있는 太平盛代가 오기를 祈求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후렴구(太平盛代: 筆者 註)라 하겠다. 한마디로 영원을 向한 未來指向의인 意識의 局面을 이 후렴구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

- ㉠ 돌하 노피곰 도드샤/머리곰 비취오시라
겨제 너러신고요/준디물 드덕을세라
어느이다 노코시라/네 가논디 접그돌세라

〈樂學軌範〉

(曲調名, 餘音 省略: 筆者 註)

- ㉡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福으란 덩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여 호논 나옴라 오소이다

〈樂學軌範〉

- ㉢ 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32) 李庸勳, op. cit., p.162.

先王聖代에 노니 〇와지이다.

〈樂章歌詞〉

물론, 위 노래 ㉔㉕㉖에서 보는 바처럼, 여요에 보이는 女人의 意識에 現實指向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女流 俗謠에 冰山一角으로 보이는 이 現實指向意識은 序論에서 말한 環境을 超越하는 意識으로, 人間이면 누구나가 共有하는 意識인 것이다. 이 人間 共有의 現實執着 意識이 속요에 보인다면 하여 女流 속요 속에 드러난 女人의 意識을 現實執着性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㉔ 노래는 ‘井邑詞’ 全聯으로 ‘行商나간 남편의 밤길의 無事를 비는 아내의 眞情’³³⁾이라거나, 또 女人의 妬忌之心’³⁴⁾이라거나, 남편의 外道를 嫉妬하는 怨恨’³⁵⁾ 등 그 어느 것을 主題로 하든 이 노래의 女心に 未來指向 意識은 없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근심하고, 질투하며, 恨할 뿐이다. 또 ㉕는 ‘動動’의 첫 스탠자로 ‘現在의 威惠 높은 분에게, 우리 모두가 정성으로 德과 福을 드리자’라 하여 現實을 頌祝하고 있다. ㉖도 ‘鄭石歌’의 首聯으로, 本聯의 意識과는 相衝하게, 現實指向 意識을 그려 本聯의 未來指向 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㉖에 보이는 ‘先王聖代’는 물론 ‘先王때의 泰平盛代와 같은 지금의 泰平盛代’의 뜻이다.

‘雙花店’

雙花店에 雙花사러 가고신던 / 回回아비 내 손모글 쥐어이다
이 말슴미 이 店 맞기 나명들명 / 쪼고맛감 샷기판네 네마리라 호리라

㉔(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그 잔던 ㄱ티없거즈니 업다.

三藏寺에 불혀라 가고신던 / 그덜 社主 | 내 손모글 쥐어이다
이 말슴미 이 店 맞기 나명들명 / 쪼고맛간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

㉕(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33) 朴晟義, 『月巖全集』(3), 『國文學通論·國文學史』에그린 出版社, 1974, p. 103.

34) 池憲英, 國語國文學會편, 『고려가요연구』, 서울, 정음사, 1979, p. 352.

35) 筆者拙稿, op. cit., p. 136.

기 잔덕 7티 없거즈니 업다

드레우드레 드를 길라 가고신탄／우똥 龍이 내 손모글 쥐어이다.

이 말스미 이 우를 맞과 나뉘들명／조고맛간 드레바가 베마리라 호리라.

㉔[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기 잔덕 7티 없거즈니 업다.

〈樂章歌詞〉

(4연, 여음 省略: 筆者 註)

이 ‘쌍화집’은 「樂章歌詞」에 傳하는 作者 年代 未詳의 고려 俗謠. 「高麗史」의 記錄³⁶⁾을 보면, 고려 忠烈王때의 所産인 듯함. 朝鮮朝에 淫詞라 해서 가장 排斥을 받았던 노래로, 「고려사」樂志에서는 ‘三藏’ ‘蛇龍’이라 했고, 「樂章歌詞」에서는 ‘雙花店’, 退溪先生은 ‘霜花店’³⁷⁾이라 했는데, 이렇게 歌題가 달리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노래도 道間에 合成·改變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鄭炳昱님은 ‘쌍화집’의 作家를 忠烈王때의 倖臣으로 推定³⁸⁾했는데 王臣이 當時의 타락된 社會裏面을 이처럼 풍자할 수 없고 보면 倖臣이라기보다는 어느 遊女의 原歌에 添加謠가 合成된 듯하다.

이 노래는 俗謠中, 當時 上流社會(外國勢力, 宗教界, 王帝, 實業人)의 腐敗相을 가장 辛辣하게 諷刺로 폭로, 高拔한 것인데 多분히 演劇的 構成으로 效果를 주고 있다. 呂增東님도,

“이와같은 與件 아래 다양한 무언극으로서의 연극이 종종 연극이 되었고 새로운 형태로서의 가극을 낳기도 했다. 이것이 곧 1279년(충렬王 5년)에 나타난 ‘쌍화집 歌劇’이었는데, 배우는 男粧別隊, 관객은 忠烈王, 지휘에 吳潛, 대본은 ‘쌍화집’ 노래로 되어 있다. 이는 忠烈王의 비위 맞추기에 안간힘을 다하던 吳潛의 제작적 所産이었다.”³⁹⁾

라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上記 鄭炳昱님의 ‘倖臣의 作品’云云의

36) 三藏 三藏寺裏點燈去 有寺主兮執吾手 倘此言兮寺外 謂上座兮是汝語 蛇龍 云云 上二歌 忠烈王朝所作 <『高麗史』 卷七十一·樂志二>

37) 李 滉, 『退溪集』 卷四三

38) 鄭炳昱, 「雙花店攷」, 『文理大學報』 17.

39) 呂增東, 『韓國文學史』, 螢雪出版社, 1973, pp. 77~78.

‘倅臣’은 ‘吳潛’을 두고 한 말 같은데, ‘吳潛’은 연출자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쌍화집’이 가극으로 연극적 구성임도 首肯할 수 있다.

이 노래는 忠烈王 當時 破廉恥한 上流社會의 荒淫이나 悖倫을 고발하고 이에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아직도 一部 無分別한 色情狂女人들을 경계하며, 마지막으로 自身の 희생당하였음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노래가 朝鮮朝 學者들의 瀟過·死藏시키던 과정에서도 용케 살아남게 된 這間의 경위를 金聖培님은,

“고려代에도 수 많은 불교 가요가 있었다 믿는다. 다만 이조의 抑佛崇儒 정책으로 많은 불교 가요가 없어지고 그 中에서, 僧侶들을 모독하고 寺僧觀戒를 비방하기 爲해 고의적으로 남겨 놓았거나 改作한 代表的 노래가 雙花店(三藏)이라 생각된다.”⁴⁰⁾

라 代辯하고 있다. 主題는 無分別했거나 不可解했던 荒淫을 후회하는 悔恨이라 하겠다.

또, 저들을 익살로 희롱하고 풍자하는 이런 民衆의 노래를 듣고도 분개는커녕 오히려 色情을 발할 수 있었던 上流層들은 變態性慾者이었거나, 性被虐待者(masochist)였을 것이다.

‘(희생당한 女人의 詞) 쌍화집에 쌍화 사러 갔었는데, 음흉한 그집 男主人에 잡혀 본의 아닌 희생을 당하였네. 童子야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면 안된단다. ㉠(色情狂 女人의 詞) 나도 한번 그런 희생을 당해보았으면... (희생당한 女人의 詞)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없거늘었어!’⁴¹⁾(답답하고 안타까웠어)

(희생당한 女人의 詞) 三藏寺에 點燈하러 갔다가 음흉한 寺主에 잡혀, 본의 아닌 희생을 당하였네. 상과중아,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선 안된단다(以下 省略)

40) 金聖培, 「고려 불교 가요의 연구」, 명지대학 『논문집』 제 5집, 명지대학, 1972, p. 223.

41) 裴鬱하다, 안타깝다(金亨奎, 『古歌謠註釋』, 一潮閣 1980, p. 325. 呂增東 『韓國文學史』, 螢雪出版社, 1973, p. 86)

(희생당한 女人의 詞) 우물(宮殿)에 갔는데 그만 龍(忠烈王)에게 잡혀 화생을 당하였네. 궁인들이, 이 소문이 성 밖으로 퍼져선 안 된단다. (以下省略).

全四聯中, 上記 例示 ㉔는 네 번의 같은 말 반복(色情狂女人의 詞)으로, 當時 現實指向의 荒淫思想을 익살로 풍자·고발했고, 이에 各聯 마지막 行은 主題行으로, 현실에서의 無分別한 荒淫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悔恨만 남기는 것으로 앞으로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참고 지키어 後約하자고 해서, 結局 未來指向 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全聯이 犧牲女와 色慾狂女의 對蹠的 意識으로 終局에선 고려 女人의 질은 未來指向性을 보여주고 있다.

‘動動’

前略

二月 ㅅ 보로메 / 아으 노피 현 燈사를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이샷다.

三月 나며 開호 / 아으 滿春돌 잊고저어
노피 브물 즈을 더너 나샷다.

五月 五日에 /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은힐 長存호살 藥이라 받줍노이다.

七月 ㅅ 보로메 / 아으 百種 排호야 두고
니물 호터 너가져 願을 비옵노이다.

十一月 ㅅ 봉당자리에 / 아으 汗衫 두피 누워
슬홀 소라운더 고우닐 스시음 녈서

後略 <樂學軌範>

(餘音 省略: 筆者 註)

이 ‘動動’은 『樂學軌範』에 傳하는 作者 年代 未詳의 고려 俗謠. 全篇 十三章(聯)으로 되고, 初章(聯)은 本詞와는 그 歌意가 截然된 듯하며 『고려사』 卷七十一·樂志⁴²⁾의 記錄대로 頌祝之詞고, 本詞는 月令으

42) 高麗俗樂, 考諸樂譜載之, 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 皆用俚語, 動動之戲, 其歌詞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 然詞俚不載.

로 떠난 임에 대한 無限한 戀情과 怨望, 초라한 自身の 振歎과 작사량의 悲哀를 그렸다. 이 ‘동동’이 크게 두 단락으로 截然된 이유는 「增補文獻備考」卷一〇六의 典據⁴³⁾처럼 序聯은 柳濯의 軍士가 濯의 威惠를 보고 濯을 頌禱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이것이 傳來된 本詞에 合成된 것으로 본다. ‘동동’이 合成謠인 可能性을 林基中, 崔正如 兩位도 다음처럼 力說했다.

“필자는 ‘동동’을 軍旅로 보며, 이 노래의 序聯은 柳濯의 勝戰宴에서 軍士들이 지어 後添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⁴³⁾

“‘동동’에서 표기된 한자를 보면 ‘百種排ᄃᆡ야’, ‘長存ᄃᆡ살’, ‘나술ᄃᆡ’, ‘開ᄃᆡ’ 등 漢字 표현은 歌의 韻律이나 표현의 순수미를 결하게 할지언정 添花格이 되지 못함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표기로 이 가사가 原形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⁴⁵⁾

그러면 ‘동동’은 언제쯤 누가 제작했을까?

柳濯의 長生浦 威惠가 고려 恭愍王 때의 事件이니, ‘동동’의 제작 연대는 最少限 恭愍王 以前이란 것을 알 수 있고 本詞의 作家는 歌意로 보아 妓女(遊女)라 할 만하다.

冒頭에 실은 글은 ‘동동’중, 2, 3, 5, 7, 11月 句인데, ‘동동’ 全篇 中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的 意識이 가장 강한 것들이다.

2, 3聯의 內容은,

‘우리 임은 燈불처럼, 또는 오얏꽃처럼 萬千人的 龜鑑이 되는 부러운 모습을 지니었다.’

하여, 우리 임은 萬千歲에 萬千人的 本보기로서, 내 영원한 理想的 戀人에 對한 片愛의 哀殘을 보이고 있다. 연등회 때의 燈불은 고려人의 佛敎的 永劫의 世界를 보여주고, 陰曆 三月의 오얏꽃은 農本社會의 眞實한 現實執着的 社會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萬人 비취실’, ‘나

43) 勳勳 合浦萬戶 柳濯 有感恩 倭使長生浦 濯赴援 倭望風而潰 軍士悅之 作以而美之 李暉光曰 頌禮之詞.

44) 林基中. 國語國文學會誌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0, p. 415.

45) 崔正如, 國語國文學會誌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p. 116.

의 브롤'의 意味가 未來指向性을 강하게 內包하고 있다 하겠다.

五月令은,

‘임을 長存하게 藥을 드리는 단오절이 되었는에도 우리 임은 안제시니...’

하여, 지금은 出征이나 使役に 從事하는 不在의 임이지만, 心情같이 서는 큰 해를 長存하게 할 藥을 드리고 싶다는 永劫에로 나아가려는 女人의 意識을 볼 수 있다.

七月令은,

‘지금은 軍役 등으로 生死를 알 수 없는 당신을 위하여, 이 百種에 조촐한 음식床을 차려 놓고 같이 살게 되기를 祈願합니다.’

라 하여 生死不問, 이승저승 어디나를 초월하여 同居하기만을 바라는 데, 이는 貞淑하며 悲壯한 意志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려 女人들은 孤寂의 絶頂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본래 樂天의이며 豁達한 기상을 발휘한다. ‘百種’에 대한 「東國歲時記」의 기록을 보면,

“高麗崇佛 是日每爲盂蘭盆會 今俗設齋是也. 國俗以中元爲亡魂日 蓋以閭閻小民是夜月夕 備蔬果酒飯 招其亡親之魂”

으로, 百種日은 佛敎儀式을 行하는 날인데, 亡人을 爲하여 百種 飲食 果實을 차려 招魂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七月令에서 女人은 이미 死去했을 지도 모르는 임에게까지 ‘한더 너가져’라 所望했는데, 이는 ‘瓜亭曲’에서 ‘너시라도 남은 혼 더 너져라’의 이미저배 이선과 같아 亦是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 意識을 한층 강하게 풍기고 있다.

十一月令은,

‘임 생각으로 쫓돌리고 지쳐, 찬 봉탕에 초라한 이부자리를 덮고 누워 생각하니, 신세가 너무 서럽구나. 하나 이데로 죽는 限이 있더라도 임을 생각하며, 생각하며 살겠다.’

하여, 극도로 초췌한 自身의 恨歎과 無限한 戀情, 悲哀가 뒤범벅으로

over-lap되어 悲愴(Pathetic)한 가운데, 질기고도 강한 未來指向 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4. 結 論

위에서 窺知한 바, 고려 사회는 國初 以後 一貫된 崇佛策과 家庭에서의 父母系(雙系) 中心의 影響下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고려女人은 본래 豁達하며, 樂天的 未來指向性을 가져, 저 朝鮮의 女人들 意識과는 對照的인 바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려는 中期 以後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局面을 맞이 한 것이다. 威臣(外威), 權臣, 武臣들의 跋扈로 인한 對內的 混亂과 이에서 自招된 外患(몽고의 屢次侵入)으로 殺戮과 양갈음, 또 大量 殺戮, 支配者에 對한 恨 맺힌 屈從과 抗拒의 阿鼻叫喚으로 집착되었다 할 만하다. 게다가 無能한 帝王은 元의 제국대장공주의 치맛자락을 잡고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었으며, 元律인 ‘致正條格’을 고려律로 代用함으로 派生된 고려 貢女制는 人倫史上 永遠히 救援받지 못할 悖倫之境이었다. 이러한 社會에 混亂과 腐敗, 아첨과 嫉妬, 荒淫과 苛歛誅求 등의 末期의 樣態는 흔히 볼 수 있다. 고려도 바로 그런 社會였었다.

그러나, 본래 豁達하며 樂天的 未來性向을 가진 舉皆 고려 女人들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朝鮮의 女人들처럼 강제로 내려진 屈辱을 甘受하지는 않았다. 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녀들은 길게 드리워진 癡鈍한 惡의 奈落을 익살과 才致로, 混亂과 腐敗는 諷刺로 抗拒·告發하고 있다. 그러자니 女流 俗謠 속에 荒淫이나 猥褻이 擧論되지만 이들 要素는 當時 社會相의 告發이나 批判의 的으로 投影된 것이지, 如此 要素들이 俗謠 속에 陰影된 고려 女人들의 未來指向 意識을 가릴 수는 없었다. ‘西京別曲’과 ‘鄭石歌’에 共有된 ‘구스리 바회에 더신돌 / 긴히튼 그즈리잇가. 즘은 히틀 외오곰 너신돌 / 信잇쫘 그즈리잇가’는 어느 번 後日에 올 理想郷이나 아니면 영원히 混亂없는 西方淨土에서 再結合을 바라는 不屈의 意志로 뭉쳐진 고려 女人의 아름다운 未來指向의 意識을 볼 수 있다.

또, ‘履縮曲’의 끝行 ‘아소 님하 혼 디 너졌 期約이다.’나, ‘만

전춘별사'의 끝行 '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필술 모루옵새'는 같은 이미이지네이선의 連結로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떠나지만, 영이별은 없어야 한다.'고 하여, 당장의 別離는 恨스럽지만 後期는 잊지 않고 있다.

. '가시리'에서 볼 수 있는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의 意識은 오히려 餘音인 '大平盛代'에 強烈히 投影되어 있고, '쌍화점'은 本詞가 온통 당시 上流層(帝王, 宗教系, 外國勢力, 實業人)들의 荒淫을 익살로 告發함으로써 未來指向 意識이 文外에 숨어 있다.

'動動'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은 歌意가 '떠난 임에 대한 無限한 戀情, 怨望, 초라한 自身の 恨歎과 짝사랑의 悲哀를 그린 것이다. 그런 지 폐세탁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佛敎의 哀傷에서 온 것이겠지만 그런대로 질기고도 은은히 着色되어 있다.

蔽一言으로, 고려 俗謠 속에 나타난 고려 女人의 意識은 불만스런 現實에 對한 諦念과 恨을 諷刺, 抵抗, 猥褻로 告發하여 대개가 積極的인 未來指向性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諦觀(諦念)이란 물론 叙上에서 말한대로 면밀하게 자기의 주변을 살핀다는 뜻으로 그 녀들은 不可解했던 무섭고도 慘憺한 현실을 恨스럽게 살피면서, 또 한편으론 諷刺 抵抗 猥褻로 告發했던 것이다. 이 諷刺, 抵抗, 猥褻 등의 要素는 現代文學의 散文化過程에 있어야 하는 必須的인 것으로 고려 俗謠의 優秀性을 證明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俗謠에 나타난 고려 女人의 未來指向 意識은 朝鮮朝 女人의 恨스럽고도 消極的 現實迫從型의 意識보다 뛰어난 것이 아닐까? 적어도 女性의 意識史에서만은 朝鮮의 그것이 고려 것에 못 미침은 確實하다.

參 考 文 獻

- 高永復：亞細亞女性研究，제10집，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1.
 國語國文學會：高麗歌謠研究，서울，正音社，1979.
 金聖培：高麗佛敎歌謠의 研究，明知大學 논문집 제 5 집，1972.
 金用淑：古小說에 나타난 愛情觀，亞細亞女性研究 제 13집，1974.
 金在萬：傳統的 韓國女人像의 研究，효성여대부설 韓國女性問題研究所

女性問題研究 제5·6집, 1976.

金智勇: 韓國古代女性 文學史 研究, 수도여사대 논문집 4집, 1970.

金智勇: 韓國女性 文學史 研究(2), 수도여사대 논문집 5집, 1971.

金亨奎: 古歌謠註釋, 서울, 一潮閣, 1980.

朴晟義: 國文學通論·國文學史, 서울, 예그림 出版社, 1974.

梁柱東: 麗謠箋注(補訂版), 서울, 乙酉文化社, 1959.

呂增東: 韓國文學史, 서울, 螢雪出版社, 1973.

延正悅: 高麗律에 關한 研究, 漢城大學 論文集 第2輯, 1978.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77.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서울, 新丘文化社, 1959.

李相寶: 韓國佛教歌辭의 歷史의 考察, 明知大 논문집 4집, 1971.

李庸勳: 麗謠의 意識指向에 對한 考察,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4輯 1979.

李在秀: 內房歌辭 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1976.

李存熙: 韓國史概說, 明知大學 出版部, 1977.

李泰極: 古典文學研究 論叢, 서울, 梨大出版部, 1973.

人物韓國史編纂會: 人物韓國史(Ⅲ), 서울, 博友社, 1965.

張德順: 國文學通論, 서울, 新丘文化社, 1973.

全圭泰: 高麗歌謠, 서울, 正音社, 1976.

趙潤濟: 國文學史, 서울, 東國文化社, 1962.

崔南善: 朝鮮의 常識, 서울, 東明社, 1948.

崔台鎬: 戒女略言研究,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亞細亞女性研究 第17輯,

筆者拙稿: 女流俗謠의 主題와 릴리시즘, 明知語文學 第12호, 1981.